

200자 안내

거지와 의사

김청운 지음

목동 영일병원 원장이자 교도소를 찾다니며 신앙전도에 힘쓰고 있는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로 화제를 모은 작가가 펴낸 실화소설. 사랑을 향락의 도구로 삼았던 주인공 병호가 무려 7년간이란 긴 세월을 환락의 세계에 빠져 있다가 어느날 깨달음처럼 진실한 사랑에 눈 뜨게 되는 정신적 방황기를 그리고 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혼란과 조급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길은 사랑뿐임”을 강조하기 위해 썼다는 게 작가의 말.

영학출판사 / A5신 / 316면 / 4600원

우리가 사랑한다는 의미는

김철주 엮음

심종록 이은준 이은학 윤대현 박서원 함성호 이복희 박인숙 이진우 전윤호 허순위 이지현 등 90년대 시단을 이끌고 갈 젊은 시인 12인이 진솔하게 털어놓는 잊을 수 없는 사랑이야기 모음. 시인 특유의 섬세한 감수성이 포착하는 사랑의 갈등구조를 서사적이면서도 직설적으로 표현, 요즘세대의 사랑법을 보여준다.

문학마을 / A5신 / 250면 / 4000원

논어와 禪

한도 다이가 외 지음 / 최효선 옮김

禪의 입장에서 「논어」를 비롯해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의 핵심적인 사고를 짚어간 책. 경전의 한 구절을 단순히 객관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또 주관적·자의적으로 빠지지도 않으면서 오로지 그 자체가 되어 읽는 것이 禪者의 읽기 태도를 제시하면서 「논어」의 각 구절들을 禪적으로 읽는 다양한 방식을 보여준다.

민족사 / A5신 / 282면 / 4500원

너의 아름다운 시간 속으로

송영 지음

중견작가인 저자의 세번째 산문집. 80년대 후반을 살면서 사회현실에 대해 느낀 단상들, 문학일반과 자신의 문학에 대한 견해, 생활 주변의 작은 이야기 등을 작가 특유의 안정된 필치로 담담하게 적고 있다. ‘행간에 그리는 자

유인의 꿈’ ‘개성있는 여성이 아름답다’ ‘비올라와 성악가’ 등 모두 4부로 구성.

모음사 / A5신 / 340면 / 4500원

여정

이석봉 엮음

선미라는 열세살의 소녀가 명창 최녹엽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항일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던 1919년 전후를 시대적 배경으로 그린 장편소설. 어린딸에게 소리를 가르쳐 돈을 벌어오게 한 한량 아버지, 자신이 명창으로 성공하는 길만이 어머니를 학대하고 자신을 이용하는 늙은꾼 아버지에 대한 유일한 복수라고 생각하는 딸의 집념이 용서와 화해라는 결말에 이르기까지 눈물겹게 펼쳐진다.

성바오로출판사 / A5신 / 208면 / 3000원

육조 혜능대사

김충호 지음

경향신문 기사를 거쳐 「씻김굿」과 「維摩經」을 집필하면서 창작에만 몰두하고 있는 작가가 쓴 구도소설. 초조보리달마로부터 오조 홍인선사까지 역대 조사들이 인생의 참모습을 깨닫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禪機 번뜩이는 그들의 모습속에서 禪의 진수를 엿보게 한다.

불광출판부 / A5신 / 356면 / 4500원

여성, 그 완전한 성생활

크론하우젠 부부 지음 / 안호 옮김

「포르노그래피와 법률」로 잘 알려진 크론하우젠 부부의 또하나의 역저로, 여성의 성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성문제에 있어서의 여성의 사회적·정치적 차별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여성의 성반응에 따른 해부학적·생리학적 관점들을 소개하고 구미여성들과의 심리학적 심층면접과 그 내용분석 결과를 상세하게 인용했다.

명문당 / A5신 / 314면 / 3900원

겨울 함바 위로 날아간 머슴새

백금남 지음

불교 구도소설 「십우도」로 주목받은 바 있는 작가의 신작 장편소설. 떠돌이 노동자 세계를 담은 작품으로 아파트 건설현장의 노동자인 ‘도성’ ‘재봉’ ‘명현’ 세사람을 중심으로 ‘노가다관’에 모여든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악덕 기업주의 행태가 현 사회의 한 단면을 상징하며 현장감 있게 펼쳐진다.

실천문학사 / A5신 / 280면 / 4000원

나도 스타가 될 수 있다

최호정 지음

연예계 지방생을 위한 입문서로 오랜 방송계 경험을 토대로 올바른 등용과정과 최신정보들을 소개했다. 현재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

연예인 19명의 조언과 함께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공채시험을 대비한 분야별 기초이론 및 연습법도 실려있다. 이외에도 연예계 관련단체, 분야별 용어해설 등을 수록.

미투 / A5신 / 280면 / 4000원

나와 너

마르틴 부버 지음 / 박문재 옮김

현대의 대표적 종교철학자로 꼽히는 마르틴 부버의 대표적 저서. 인간성 상실 및 소외라는 개인 영성의 문제와 인간관계 및 신앙의 진정한 의미, 자연과 인간과 신의 관계 등을 ‘만남의 철학’으로 파악한 그의 핵심사상이 실려있다. 현대사회의 모든 소외의 문제는 ‘만남’에서 비롯되는 신비한 힘의 상실에 기원한다는 철학적·종교적 해석을 보여준다.

인간사 / A5신 / 212면 / 3800원

결혼문제해결

김지연 지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미혼남녀들의 최대의 관심사인 결혼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했다. 배우자를 고르는 비결, 결혼 후 완만하게 생활하는 방법 등 실질적인 문제에서부터 연애결혼, 편이결혼, 성욕결혼, 이용결혼, 맹목결혼, 심미결혼, 도의결혼 등 결혼의 다양한 형태 분석 등에 이르기까지 저자 특유의 해학과 유머가 깃들어 있다.

여린 / A5신 / 188면 / 3800원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심영희 지음

성폭력, 간통, 낙태,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다양한 문제 등 ‘여성억압과 불평등’에 대해 경험과학적 조사결과를 토대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젠더(Gender)’와 관련된 불평등의 제거와 함께 여성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여성성을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나남 / A5신 / 352면 / 7500원

소설 임진왜란 (상·하)

오다 마코토 지음 / 김윤 외 옮김

일본의 양심적인 지성인으로 손꼽히는 작가가 임진왜란의 전과정을 일본소년 통이와 누이 민이의 시선을 통해 쫓아가면서 한·일 고대사 및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얼룩진 한일관계를 추적하고 있는 독특한 구성의 소설. 작가는 임진왜란을 히데요시의 조선 ‘출병’이 아니라 조선 ‘침략’으로 규정 일본지식인으로는 특이한 시각을 보여주는데, 작가는 전쟁에 참가하여 직접 그 참상을 목격한 일본소녀 민이가 조선민중과 운명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맺고 있다.

웅진출판 / A5신 / 각 360면 / 각 4800원

명산기행

박계수 지음

서울근교를 중심으로 당일산행에 적합한 50개 명산 명코스를 소개했다. ‘가족과 함께 떠나는’의 부제에서 보듯 기존의 산행 안내서가 가지는 정보에다 그 산에 얽힌 전설이나 역사를 이야기식으로 곁들여 재미있게 서술하고 있어, 산을 오르며 가족과 함께 읽고 배울 수 있게 꾸민것이 특징. 산입구의 주차장까지 정확히 표시 자가운전자를 위한 상세한 안내지도도 곁들여 있다.

평화출판사 / A5 / 220면 / 4000원

비어있는 자리

조안 하이니스 크리스 지음 / 이정미 옮김

캐나다 위니펙에 거주하면서 인간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저자가 마음속의 허전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술로 약물로 수다로 자신을 밖으로만 내돌리는 사람들에게 띄우는 사랑의 메시지. 밖에서 주어지는 일시적 ‘자극’이나 쾌락이 아니라 샘물처럼 솟아나는 내부의 기쁨, 끝없이 퍼내도 고갈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요구에 귀 기울일 것을 조언한다.

도솔 / A5변형 / 144면 / 3500원

三國記(1·2)

李南教 지음

일본 고오베 한국종합교육원 원장으로 재직 중인 작가의 장편소설로, 현재 T.V 드라마로도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 오랜 자료수집과정을 거쳐 한일 고대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구려·백제·신라의 각축전 끝에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과 현해탄을 건너 일본 중세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백제인 가마다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영웅들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렸다.

고려원 / A5신 / 각 324, 342면 / 각 4500원

아름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아름답습니다

노항림 지음

중견시인의 에세이모음. ‘비워둔 자리에 그대 가슴으로 다가오라’ ‘시인이 아니어도 열정을 꿈꾸어야 하리’ ‘그대 위안의 끝이 내가 될 수 있다면’의 3부로 나눠 50여편의 글들을 실었다. 날마다 부딪치는 일상의 단편, 어린시절의 추억, 시인으로서의 자기변민, 소설과 영화이야기 등이 섬세한 필치에 담겨 있다.

한겨레 / A5신 / 286면 / 4500원

숨어있는 神

박병로 지음

89년 「세계의 문학」을 통해 등단한 작가의 신작 장편소설. 시대의 빠른 변화에 떠밀려 당혹스러워하는 한 지식인의 정신적 움직임

자유기고가 '오맹술'이라는 희극적 인물을 통해 그려내고 있는데, 꽃마을로 거처를 옮긴 주인공이 원인모를 방화사건을 통해 없는자들의 소외감과 절망을 경험하며 돈키호테적 행동을 펼쳐가는 이야기.

중앙일보사 / A5신 / 308면 / 4000원

계간지

오늘의 문예비평(1992년 봄)

[특집-좌담] 현대 한국문학 비평의 진단과 전망

[작가탐방] 소설가 이석호를 찾아서

[특집-문학과 이데올로기] ▲구동독에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논의과정(박설호) ▲해체의 주체와 주체의 해체(정형철)▲비평의 이중적 정치성(남송우) ▲예술가와 정치(김옥수)

[오늘의 작가] ▲金明仁, 치욕과 회한의 시계추(김경복)

[논문] ▲막심 고리끼의 「어머니」 연구 ①(이강은)

[비평] ▲비판시학의 열린 체계: 해석에서 해체로(구모룡)

[서평] ▲추의 미 발견으로서 아웃사이드의 독백(문선영) ▲화해의 정서와 화해된 도시(진창영) ▲절망에서 비롯되는 그리움의 두 양상(최갑진) ▲삶 속의 죽음과 죽음 속의 삶(김창식) ▲해방공간의 비평문학의 논리(김강호) ▲한국 도적 모티브의 소설(명형태)

地平 / A5신 / 256면 / 4000원

학술지

南冥學研究(창간호)

경상대남명학연구소 엮음

[논문] ▲趙南冥의 精神構圖(李東歡) ▲南冥曹植의 「神明舍圖」 考察(全炳旒) ▲南冥의 成學過程과 學問精神(崔錫起) ▲南冥學에 있어서 莊子思想의 位置(吳進鐸) ▲南冥思想과 顏淵(張源哲) ▲南冥曹植의 教育思想에 관한 연구(史在明) ▲大笑軒趙宗道 연구(許捲洙) ▲寒岡의 학문성향과 문학(李相弼)

[자료] ▲남명학관계자료목록: 附解題(조사부)

[영인자료] ▲「南冥集」 最古本(甲辰本): 附解題(연구부)

경상대남명학연구소 / A5신 / 438면 / 비매품

韓國文學研究(제14집)

한국문학연구소 엮음

[특집] 전통적 문학사상의 근대적 전개 III ▲위정척사파 詩의 사상적 특질(송준호) ▲근대문학과 동학가사(정재호) ▲한국문학과 기독교사상(이인복)

[논문] ▲김억의 알베르 싸멩 번역을 살핀다

(김장호) ▲孤山詩歌의 도교철학적 조명(문영오) ▲「龍門夢遊錄」에 대하여(강동화) ▲1930년대 한국여성들의 사회의식연구(신상성) ▲시조시학으로서의 用事(김갑기) ▲嚴世鄙態錄연구(김장동) ▲유가적 인간이해시론-「天君紀」에의 고찰(김동협) ▲求法施行과 그 부대설화의 일고찰(김승호) ▲세시가요의 구조와 의미(김창식) ▲근대이전 우리문학 인식의 발자취(송희복) ▲한 아방가르디스트의 모험과 실패-趙鄉(고명수) ▲1920~30년대 시에 나타난 근대문명 인식(유임하) ▲中菴 채홍철의 시가연구(허철희)

[부록] ▲제10차 한국문학학술회의 종합토의록 요지 ▲한국문학연구 총목차(1집~13집) ▲한국문학연구소 연혁 ▲彙報 동국대학교 / B5 / 402면 / 비매품

무크

시대와 철학(제4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엮음

[특집] 중국전통철학과 사회주의 ▲비판 계승론의 문화전략(유동환) ▲'유교자본주의'와 현대중국(홍원식) ▲서체중용과 중국적 마르크스주의(황성만) ▲철저재건론자들의 중국 문화 탐색(황희경)

[인물평전] ▲박노해-다시 고난에 찬 우정을 기대하며(김창호)

[시철제언] ▲'지식인'과 노동조합(한면희)

[시철논단] ▲제자백가의 다양한 전쟁론과 그 철학적 문제의식 ①(송영배) ▲변증법은 과학적인가, 규제적인가(우기동) ▲장자의 인간론(김갑수) ▲알튀세르의 역사이해(하주영)

[서평] ▲「포스트모더니즘 비판」을 읽고(이정원)

[시론] ▲흔들리지 말고 바닥부터 다시(이정호)

[해외철학동향] ▲중국마르크스주의 철학의 모색(이현구)

동녘 / A5신 / 272면 / 4500원



정상으로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苦盡甘來』란 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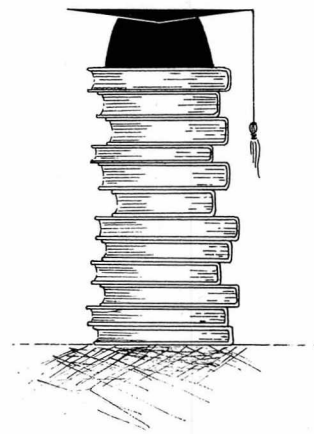
노력 끝에 얻어진 성취감은 그 과정의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저희 「마루벌」가족은 설립 이래로

출판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선도자' 적 입장으로 단 한권의 책이라도 온 정성을 다하여 가꾸고 다듬어 최고의 만족감·성취감을 목표로 일해 왔습니다.

그러한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얻어진 책 한권은 무엇보다 소중한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루벌」가족은 좋은 책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마루벌이 소중히 여기는 일들

디자인	출판·광고 디자인·표지·본문 디자인·카드로그 디자인 등
편집	매킨토시로 단행본·사보·잡지·본문 편집·교정·교열
출력	매킨토시 출력서비스
제판	원색제판·단색제판
제작	인쇄·코팅·제본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40-6 TEL:701-2391(대표) FAX:701-2395